

4대강 예산 “사수” “삭감” 여야 혈투

이번주 예산심의 치열한 공방전 원내대표회담서 절충 시도할 듯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가 이번 주 내에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쟁점 사안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세부 내역서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접점을 찾았다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의 경우, 과거처럼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며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예산내역 ‘되권’=정부가 현재 국회에 제출한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사업 예산은 국가하천정비 사업에 포함돼 총액계상 형태로 편성돼 있다.

이 때문에 4대강 사업의 예산 삭감을 버리고 있는 민주당은 세부 내역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여결위와 국토해양위 예산심사 보이콧에 들어갔다.

한나라당도 4대강 예산내역이 미비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심재철 여결위원장은 정부에 4대강 예산내역을 보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4대강 예산내역서가 다시 제출된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않을 전망이다. 4대강 사업은 제방 보강, 준설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패키지형이라는 점에서 세부사업별 설계 등에서 민주당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어렵기 때문이다.

즉, 4대강 예산내역서가 다시 제출된다면 민주당이 수계별, 공구별 구체적인 사업예산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예산심사 ‘보이콧’ 장기화에 들어갈 수 있다.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한나라당은 정부가 4대강 예산 세부내역을 제출하면 여결위를 곧바로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여결위원장은 “정부의 4대강 예산내역서가 도착하면 이를 토대로 여결위 예산심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12월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급주 중 진행될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오는 20일부터 여결위를 가동해 종합질의(3일), 부처별심사(4일), 계수조정소위를 차질없이 진행하면 내달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회기 안

에 예산안이 처리돼야 내년 1월부터 곧바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갈 수 있고 서민지원 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꼼꼼한 예산 심의 추진=민주당은 예산심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4대강 예산을 최대한 꼼꼼하게 심사해 거품을 걸어내고, 이를 아동과 복지, 노인, 중소기업, 일자리,

지방예산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내역서가 제출되면 내부 검증 과정, 소관 상임위원 국토해양위 예산 심사를 거쳐 이달 말께 여결위를 시작한다는 잠정적인 입장을 잡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의 경우 미디어법 재개정 논의 등이 진행돼야 예산심사를 진행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12월9일까지 여결위 예산심사를 끝내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작정이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후 임시국회를 소집, 여결위에서 충분한 예산심사 절차를 밟은 뒤 연말께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국노총 천막농성장 찾은 정대표
민주당 정세균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천막농성 중인 한국노총 지도부를 방문, 장석춘 위원장 등 노총 지도부와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등 현안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국고보조금 전국 최하위권 재정 열악 지자체 고려 배분을”

강운태 의원 주장



강운태 의원은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 상태를 감안해 재정이 취약한 곳에 더 많이 배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광주시가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규모에서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은 1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05~2009) 자치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104조6천683억원 중 광주가 받은 국고보조금은 2조7천731억원로 전체의 2.6%에 그쳤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4위로 최하위권이다. 전남은 11조9천625억원(11.4%)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았다.

국고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지자체는 경기 12조9천905억원(12.4%)이었으며, 이어 전남, 경남 10조1천966억원(9.7%), 경북 9조8천242억원(9.4%), 전북 8조1천946억원(7.8%) 순이었다.

서울을 포함한 7대 대도시 중에서는 부산 7조8천169억원(7.5%)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조3천172억원(6.0%), 인천 4조4천666억원(4.3%), 대구 4조1천200억원(3.9%), 광주, 대전 2조4천992억원(2.3%), 울산 1조4천660억원(1.4%)이 뒤를 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행 보조금 배분방식은 이를 감안하지 않고 사업별로 일정비율을 보조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복지시설사업, 문화·체육 시설사업, 5+2 광역선도산업 지원비 등을 사업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는 지원비율을 높이고 재정이 부강한 자치단체는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국고 보조금이 인구를 기준으로 복지, 지방도로 건설, 농업 부문에 편중되기 때문에 31개 시·군을 갖고 있는 경기도 등에 비해 광주시의 배분액이 적을 수밖에 없으며, 실제 국고보조금이 광주시의 전체 국고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광역시 국고 확보의 기준이 되는 광역특별회계 지역개발비 정액의 경우 광주시가 최근 5년 동안 3천927억원을 확보해 서울을 제외한 도시 가운데 두번째로 많았다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친노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 결성식

친노그룹에 신당과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당원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식을 개최했다.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게 된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결성식에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힘있게 세웠던 원칙과 상식의 기둥들이 뿌리째 뽑혀가고 있다”며 “깨어있는 바보들이 국민권력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참여당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 뒤 “우리는 거룩하고 위대했던 바보들의 자취와 정신을 면발치서나마 이어가고, 실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실장은 밝힌 회비를 낸 ‘주권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원장 선거에서 99.7%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이와 함께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

는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은 자문위원장 겸 통일정책자문위원을 맡았고,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정책 자문위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가전략자문위원,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언론정책 자문위원을 맡게 됐다.

국민참여당은 ▲세종시 백지화 음모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지키겠다 ▲내년도 복지예산 삭감에 반대한다 ▲권력의 언론지배와 부패인사의 방송장악에 반대한다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등의 ‘4대 정책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최근 입당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참석자들의 노래에 맞춰 단상 위에서 춤을 추기도 했다.

/연합뉴스

“당선무효형 100만원→300만원~500만원으로”

한나라, 벌금기준 상향 검토... 시민단체 등 반발

한나라당이 현재 100만원의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형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 관계자는 15일 “전차민별 선거법위반에 대해 단순히 100만원이라는 기준으로 당락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가혹하며 문제가 있다”며 “이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데 여야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다만 이 부분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할 부분이기에 신중하게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이 같은 당선무효형의 기준 상향과 함께 위반의 종류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를 가리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권선거 등과 같은 중대 위반인

경우는 당선무효형까지 내릴 수 있게 하되, 단순히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과 같이 가벼운 위반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 사항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당선무효형의 벌금 기준으로는 300만~500만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

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하지만, 이 같은 한나라당의 방침이 전해지자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무효화시킴으로써 정치권 스스로 혼탁한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당이 이 같은 의도는 당선무효로 처리되는 대부분의 재선거에서 야당에 패한 데 따

른 안전장치라는 비판도 있어 야당에서 순순히 동의해 줄지도 미지수다.

한편, 정치권은 선거에서 기부품을 받았을 경우 그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선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일률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중하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는 의미”라며 “사건의 경중을 봐서 재판부가 탄력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개정 공직선거법을 내년 전국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입구정영어회화

3%글로벌 인재가 필요한 스펙!!

전 화 영어회화

화상철판 영어회화, 꼭 해야합니다

- 단지, 영어말하기를 위해 미국형 학력이 필요할까요?
- 입학사정관/취업담당자는 영어회화, 수학, 국어, 예체능을 모두 잘하는 인재를 선호합니다.
- 영어회화는 입구정영어회화로 하면 유행해집니다.

※ 초·중·고 영어수업도 화상영어로 합니다!

외국인 1:1 입구정 Trend, 입구정 Pride
www.영어말하기.kr 070-7433-0594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한국씨티은행과 함께!

citi 신용대출 직장인 사업자

한국씨티그룹캐피탈주

2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

대출대상 - 직장인(또는 배우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대출금액 - 최저 200만원~최고 5,000만원
대출기간 - 1년 ~ 최장 4년까지(6개월단위)
대출금리 - 100만원당 1년 만기 상환시 월 4천 500원부터

신용도를 관리해 드리는 채무통합서비스

타 시에서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고객님께 더 나은 신용도를 열어드리는 채무통합 서비스! 취급수수료 면제 및 월 납입금까지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씨티파이낸셜 전 화 상 담 010-7167-3838

부동산투자클럽

T. 011-641-0925, (062) 515-4985

- ▶ 펜션부지(광주호상류-가든시당, 과수원, 임야) 34.830㎡ 매매가 3.3㎡당 12만원
- 농지(무안군 운남면) 23,600㎡(바닷가, 계획관리지역) - 매매가 3.3㎡당 20만원
- ▶ 대지(신촌동) 764㎡(버스승강장전, 전철역 5분거리) 매매가 ㎡당 36만원(원룸, 빌라, 물류창고적합)
- 고시빌(전대후문 체육공원 인근) 대 282㎡/건 560㎡ (최근중문) 톨52(톨당 월임대료 23만원)매매가 8억5천
- ▶ 대지(북구 신안동)402㎡(물류창고적합) 매매가 3.3㎡당 150만원
- 상가주택(오치동 대단지 아파트 입구) - 대 496㎡/건 1487㎡ (6층건물) 매매가 17억
- ▶ 임야(남평읍 우산리) 16,811㎡(계획관리지역) 매매가 4억5천
- 농지(충효동-광주호상류)전 1,927㎡ - 각종 유실수 100여 주식제, 매매가 ㎡당 9만5천
- ▶ 가든시당(칠곡산국립공원 입구) 7,665㎡ 식당, 숙박업, 단란주점, 체육시설, 농장 모든시설 허가 필 - 매매가 3.3㎡ 당 32만원

경매부동산상당, 대출상당, 각종부동산투자상담

부동산투자클럽 공인 중개 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0-3(용봉동 하이마트 옆)